

여야 “도로친박당” vs “내로남불 활개”

[탄핵2년]

여야 4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을 앞둔 9일 논평을 통해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역사적 퇴행의 길을 가고 있다” “탄핵 세력이 선거제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촛불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 정권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국당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원하는 길이 아닌 역사적 퇴행의 길을 가고 있는 한국당이 우려스럽다”라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회의 및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및 석방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국당 사면 거론하며 역사적 퇴행길 우려”

민주평화 “촛불민심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돼야”

바른미래 “내로남불 활개... 촛불정신 구현되고 있나”

정의당 “사면 운운하는 한국당, ‘도로친박당’ 선언”

그는 “더욱이 각각 검사 및 판사 출신인 두 대표가 재판이 진행돼 형선고도 받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사면을 거론하고 있다. 자기부정일 뿐 아니라 촛불혁명의 주체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라며 “한국당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품격 있는 건전한 보수 재건의 길을 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구두 논평을 통해 “한겨울 내내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정상화, 공평과 정의의 대한민국을 염원했던 촛불민심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탄핵에 책임있는 세력이 다시 퇴행적인 행태로 국민의 현혹하면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의 반사적 이익을 얻는 잘못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탄핵과 촛불혁명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그는 “탄핵에 책임있는 세력이

중심이 된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의원직 사퇴 운운하는 것에 대해 촛불민심은 ‘사퇴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촛불민심으로부터 개혁을 위임 받은 정부여당도 성찰하고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적 판결이 진행 중임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사면 운운하는 것은 헌법질서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친박 제일주의’를 드러낸 것으로 사실상 도로 친박당 선언”이라며 “차라리 자유한국당 간판을 내리고 도로 친박당 간판을 걸어야”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권력의 담지자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제10당 지도부는 국정농단의 부역과 방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지 친박 세력 모으기에 올인할 때가 아니다”라며 “촛불에 댄 상처를 잊고 친박 세력 규합에 올인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말로와 결코 다르지 않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말 것”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촛불 정신과 탄핵 정신은 과연 올바르게 구현되고 있는지 심각한 회의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방의 문제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전수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통령이란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내 사람’의 이익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탄핵 취지가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치적 폐습은 과연 청산됐는가. 폐습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바뀐 것인가. 아니면 그 진통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폐습이 더 깊어진 건가”라며 “한쪽에선 탄핵 부정 세력이 활개를 치고 한쪽에서는 슈퍼 내로남불이 활개를 친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안갔나 못갔나?... 입각 명단 제외된 이상호에 시선 집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유력시 되던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각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우 의원이 차기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말아야 할 역할이 있다’는 입장이다.



가능성이 높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아울러 “여러 가지 고려가 됐지만 가장 큰 것은 당의 요청”이라며 “당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 어찌 강기정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해한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원은 민주당 주류 그룹 중 하나인 전대협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대선 기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현 정부 출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개각 때마다 후보로 거론됐고 이번 개각에서는 상임위 활동을 했던 문체부 진입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우 의원도 전대협 관련 모임에서 입각 의지를 표출하는 등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제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해한 민주당

문체부 장관 유력 후보로 막판까지 거론... 본인도 의지靑 “빠진 것 아냐, 당에서 필요하다는 요청 있었다” 설명 민주당 “이해한 대표가 만류... 총선 승리 위해 역할 할 것” 정치권, 결격 사유 있나 추측도... 구체적 팩트 없는 수준

능한 만큼 우 의원이 입각 후 차기 총선 대선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개각 발표 전날부터 입각 제외 사실이 보도됐고 실제 8일 청와대가 발표한 명단에서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확정됐다.

박 전 차관은 현 정부 지지그룹 중 하나인 참여연대와 민변 등이 지난 5일 “한국영화산업발전센터 공동대표 등을 맡으면서 C그룹 이해만 반영했다”며 입각 공개 반대 성명을 낸 대상자다.

당정은 우 의원의 입각 제외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 의원 등 복수 후보를 검증하다 당의 요청에 따라 개각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춘추관에서 우 의원의 입각 제외 경위를 질문 받고 “빠진 것이 아니다”라며 “제가 언제부터 여러분(언론인)이 단수로 (후보를) 확정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 틀릴

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개각 발표 후 출입기자들에게 ‘우 의원 입각 대상 제외 관련 브리핑’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정부 2기 입각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돼온 우 의원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만류가 있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이 인사검증 절차에서 문제가 생겨 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우 의원은 원내대표를 역임한 당내 중진 의원으로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추후 당에서 그에 적합한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대변인과 전략홍보본부장, 대선 공보단장 원내대표 등을 역임해 ‘전략기획통’으로 꼽힌다.

한편 당정의 해명에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입증되지 않은 수준이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김정숙 여사 아세안 3개국 순방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文복심’ 양정철, 최근 민주연구원장 수락... 5월 당 복귀할듯

내년 총선 직접 출마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탁캠프 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양 전 비서관에게) 연구원장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전하고 본인도 이런저런 고심 끝에 이해한 대표께 수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 전 비서관의 원장직 수락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 같다”며 “본인이 고사하다가 하고자 하는 의사가 생긴

것인 만큼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긍정적으로 서로 의견이 교환된 정도며 최종적으로는 최고위원회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특히 현 원장의 임기가 오는 5월인 만큼 만료 시점 후에 후임 원장에 대한 선출 공모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 전 비서관의 당 복귀 시점도 5월께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게이오대 방문교수로 일본에 체류 중인 양 전 비서관은 방문교수 임기를 마치는 다음달 말께 완전히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양 전 비서관이 민주연구원 원장직을 맡을 경우 내년 총선 승리 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입각에선 양 전 비서관이 직접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